

# SPLASH ASEAN!

아세안의 삶과 물

## WATER, A CELEBRATION OF LIFE



SPLASH ASEAN!

아세안의 삶과 물

WATER, A CELEBRATION OF LIFE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아세안의 삶과 물

2019.6.18.-9.22.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이 전시는 아세안 10개국의 대사관, 정부 및 여러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루나이 دار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본 전시 준비에 협력해주신 아래 국내·외 기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종교문화부  
싱가포르국립도서관  
싱가포르 공공시설부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후원  
외교부  
부산시

주최·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2019.6.18 - 9.22  
ASEAN Culture House, Special Exhibition Gallery

This exhibition was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support and contributions from the embassies and governments of the 10 ASEAN Member States: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Special thanks to following institutions for their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preparation of the exhibition *Splash ASEAN!*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of Myanmar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Public Utilities Board of Singapo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Viet Nam  
Asia Culture Institute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Suppor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s  
The Korea Foundation  
ASEAN Culture House



일러두기

- 1
- 이 도록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아세안의 삶과 물》(2019.6.18-9.22)의 전시도록으로 발간하였다.
- 2
-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고, 후원기관의 명칭 등의 정리는 영문 알파벳 순을 따랐다.
- 3
- 성명 표기는 나라별 모국어 표기법을 존중하였다.
- 4
- 작품 배열 순서는 전시의 주제 구성과 전시장 동선 순서에 따랐다.
- 5
- 수록작품은 작품명, 재료, 크기, 국적, 시대, 소장처 순으로 표기하였다.

Editor’s Note

- 1
- This catalogue is published for the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 2
- The official languages are Korean and English. The names of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event are listed alphabetically in English.
- 3
- The names of participants are written with respect to the native languages.
- 4
- The listing of exhibits follows the thematic titles of the exhibition and the display order.
- 5
- Plates caption follows the order of the title, material, size, nationality, period and collection.

목차 CONTENTS

8	인사말  Foreword
10	기획의 글  Curator's Note
14	아세안의 삶과 물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24	아세안의 물 – 언어  Water in ASEAN – Linguistic Expression
34	아세안의 물 – 설화  Water in ASEAN – Narratives
50	아세안의 수상가옥  Aquatic Housing in ASEAN
60	아세안의 일상과 물  Water and Daily Life in ASEAN
114	아세안의 의례와 물  Water and Rituals in ASEAN
136	도판목록  List of Plates

## 인사말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된 올해 아세안문화원의 기획전시 <<아세안의 삶과 물>>의 도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기에,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된 본 전시가 ‘물’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조명했다는 점은 더욱 의미 깊습니다.

1991년 설립 이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국학 증진, 문화예술 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부터는 아세안문화원의 운영을 맡아 보다 밀도 있는 한-아세안 쌍방향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회원국 국민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우호친선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 4~5회 개최되는 아세안문화원의 기획전시는 방문객들의 문화적·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아세안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자, 탄생, 정화, 풍요 등의 상징성을 지니며, 인류 역사 속에서 설화와 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아세안의 삶과 물>>전은 물이라는 보편적인 물질을 활용해 온 인간활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한 문화적 특수성, 특히 아세안 사람들이 일구어 온 고유한 삶의 지혜를 조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의 관람객들은 물을 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에 깃든 환경적·지역적 특징뿐만 아니라, 설화, 의례, 축제 등으로 대변되는 종교적·정신적 특징들 역시 고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삶과 물>>전은 아세안 10개국 주한 대사관과 현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전시를 위해 귀한 지식과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국내 협력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협력작가 분들 덕분에 전시공간이 보다 풍성한 전시품들, 시청각 자료와 훌륭한 예술작품들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객원 큐레이터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 근

## Foreword

It is my great pleasure to see the publication of the catalogue of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the ASEAN Culture House’s special exhibition for 2019, as we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Korea dialogue relations. With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scheduled for November, our exhibition, which ran from June 18–September 22, had added significance, shedding light on the cultures of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under the common theme of “water.”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1, the Korea Foundation has conducted a diverse array of projects to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ASEAN. These endeavors range from promoting Korean studies in ASEAN countries to nurturing artistic,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ASEAN Culture House, as an extension of previous projects,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 Foundation since 2017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the mutual trust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of ASEAN and Korea through a wide variety of cultural exchanges. In particular, the ASEAN Culture House’s special exhibitions, which are held four to five times each year, serve not only to meet visitors’ cultural and artistic needs but also as a field for a joyful and interesting exploration of the histories and cultures of the ASEAN member states.

Water is an essential substance for all living creatures and carries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birth, purification, and abundance. It has been a source of stories, myths, and legends throughout human history. *Splash ASEAN!* served to highlight the role of water both as a universal substance and as a source of power that contributes to cultural distinctiveness through human activity. Visitors to the exhibition learned more about the environmental and regional factors that impact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of ASEAN, as well as about the religious and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region’s myths, rituals, festivals, etc.

*Splash ASEAN!* was supported and made possible by the embassies of all 10 ASEAN member states in Korea and by relevant institutions from these nations. Thanks are also due to cooperating institutions and their staff, who gladly shared their knowledge and resources, and to all collaborating artists. It is because of their efforts that our gallery space came to be filled with abundant water-related exhibits, audio-visual resources, and incredible works of art.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our guest curator and to many other people whose tireless efforts went toward preparing the exhibition. I look very much forward to further cooperation and exchange of culture between ASEAN and Korea.

Geun Lee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 기획의 글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주제로 ‘물’을 주목했습니다. 메콩강을 비롯한 큰 하천, 톤레삽 호수 및 인레 호수와 같은 대규모 호수, 인도양 및 태평양 바다에 접해있는 아세안 10개국은 고유한 자연환경 속에서 물을 인식하고 활용해왔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달시켜 온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물이라는 보편적인 물질에 투영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각 국가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물을 기반으로 발달한 아세안 국가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각국의 물과 관련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를 함께 조명하고, 물에 대한 국가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의 물과 관련한 언어 표현을 정리하고, 각국의 물 관련 설화를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주거형태로 수상가옥을 소개하고, 일상 및 의례에서 사용하는 물과 관련한 공예품을 확보하여 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물축제를 설명하며 물이 지닌 정화의 의미를 보여주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아세안인들의 삶을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시의 대상이 되는 물은 전시품으로 직접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 작가의 영상과 음향 작품을 통해 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전시실 도입부에서 물의 물질성을 담아낸 영상을 여러 겹의 천 스크린에 투영하여 전시실 전체에 느낌을 전달했고, 물과 관련한 언어 표현도 단채널 비디오 영상을 통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연출하여 물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실질적인 전시품 구성에서는 각 국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한 설화는 국가별로 빠짐없이 발굴하고, 보다 용이한 내용 전달을 위해 그림책의 형식으로 전시했습니다. 기존에 출판된 그림책 24권을 확보하여 진열했으며, 따로 출판된 그림책을 찾지 못한 경우, 설화집 등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하여 전시를 위한 그림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스 설화를 다룬 『깊은 물 속의 두 친구』, 미얀마 설화를 다룬 『용공주와 세 개의 알』, 캄보디아 설화를 다룬 『카운디냐와 소마공주』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일러스트 원화와 간단한 이야기 소개 책자도 함께 전시하여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예품은 전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상에서 물을 길고, 저장하고, 운반할 때 사용한 도구부터 특별한 의미를 담아 의례에서 사용한 용기까지, 재료와 쓰임에 따른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흙, 식물의 열매 등으로 제작한 일상용품부터 은, 구리와 같은 금속이나 말총 같이 귀한 재료로 제작한 특수 용품까지 함께 소개하며 아세안 10개국 사람들의 지혜와 솜씨를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세안의 물축제는 물이 가진 정화의 힘에서 비롯한 의례입니다. 물축제는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의 새해맞이 행사로, 불상을 깨끗한 물로 씻고, 서로에게 물을 부어주며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전시실에서는 영상 작가에게 의뢰하여 축제의 풍경을 모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경건한 마음부터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현장까지 담아낸 영상은 물축제의 다채로운 면모를 전달해 줍니다.

전시에서는 물과 함께 살아가는 아세안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가는 모두에게 물은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아세안의 삶과 물≫ 전시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조화시키며 살아가는 아세안 사람들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객원큐레이터

오가영

## Curator's Note

The ASEAN Culture House has chosen “water” as the theme of this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From large rivers such as the Mekong and lakes such as the Tonlé Sap and Inle to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Southeast Asia is home to many different bodies of water. Naturally, the 10 ASEAN member states have conceptualized and utilized this water in myriad ways due to their distinctive natural environment. An in-depth observation of the ASEAN countries, in particular of their diverse socio-cultural features reflected through the universal substance of water, therefore offers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identity of each nation.

*Splash ASEAN!* was organiz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se cultures which water has been so fundamental in shaping. Efforts were dedicated to highlight both material and non-material cultural aspects with relevance to water as well a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water across ASEAN. The exhibition presents ASEAN linguistic expressions and narratives such as myths, legends, and folklore related to water. It also introduces aquatic housing, an architecture common to the region, and includes a showcase of water-related crafts for both every day and ritualistic uses. Also explored, through photographs and videos, is the notion of water as a symbol of purification through water festivals, a variety of celebration typical to Southeast Asia, and the significance of water in the lives of the peoples of ASEAN.

Given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showcasing actual water, we decided to present the image of water by commissioning sound and video installations from contemporary artists. In the first section of the exhibition is a video piece embody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Video is projected onto multiple layers of fabric screens, creating a sensorial effect across the entire gallery space. An additional single-channel video enriches the visualization of the image of water by featuring a succession of water-related words in ASEAN languages that resemble falling droplets of water.

In composing the actual exhibits, we tri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all 10 ASEAN countries. In particular, we researched water-related narratives from each nation and presented them in the form of illustrated books easily accessible to the audience. The collection on display includes 24 books that had already been published, together with three books that were newly created and published specifically for the exhibition in collaboration with illustrators. These three stories are *A Tale of Two Underwater Friends*, *The Naga Princess and Her Three Eggs*, and *Kaundinya and Princess Soma*, presenting myths from Laos, Myanmar, and Cambodia, respectively. Another special feature of this section is a series of original illustrations of short stories accompanied by booklets.

The crafts showcase,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the exhibition, presents objects in a wide range of materials for a variety of usages, including implements for collecting and transporting water and vessels for ritual or ceremonial occasions. The exhibits range from everyday crafts made of easily obtainable materials such as wood, clay, and fruit husks to objects made of more precious materials such as silver, copper, and horsehair, all demonstrating the wisdom and exquisite craftsmanship of the peoples of ASEAN.

The last section of the exhibition presents water festivals of ASEAN, which are rooted in the belief that water holds purifying powers. On display is a video piece that was commissioned for the exhibition to offer a glimpse into these festivals, which are observed as New Year celebrations across mainland ASEAN countries. They include customs such as cleansing Buddhist statues and sprinkling water on friends and family as a gesture of wishing for a prosperous year. From the sacred rituals to cleanse off evil and negativities to the grand festivities of splashing and dousing one another in water, the video documents diverse aspects of these celebrations.

Overall, we have prepared this exhibition as an exploration of the diverse facets of the lives of the peoples of ASEAN,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water. For all of us, living similar yet different lives, water is a celebration of life. It is hoped that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will off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eoples of ASEAN and the ways in which they harmoniously embrace the region’s abundance of water and all its other unique natu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Guest Curator  
Gayoung Oh

#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 아세안의 삶과 물

인류의 문명은 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물은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물질입니다.

모든 인류는 물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물은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고 공동체의 특징적인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아세안의 삶과 물》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림책과 다양한 공예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의 물과 관련한 언어, 설화 및 신화를 소개하고,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세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조화시키며 살아가는 아세안 사람들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 is through water that humans survive and thrive. Water is the origin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most familiar and critically important substance to humanity.

Because water is such a highly valued source of life, throughout history, societies have continuously strived to discover and develop practices for wiser usage and management of this resource. And as a medium, water shapes both a society's distinct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its broader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The ASEAN Culture House is proud to present the special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The exhibition explores and celebrates the profound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water in ASEAN countries through a broad range of media, including photography, video, picture books, and crafts. Visitors are invited to reflect on the exhibition's theme through diverse facets of culture including linguistic traditions (as reflected in expressions, folklore, myths, and legends), patterns of daily life, and social customs. It is hoped that *Splash ASEAN!* will offer visitors a deeper,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peoples of ASEAN and their lives, which harmoniously embrace the region's abundance of water and all its other unique natu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 1 브루나이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 2 캄보디아왕국  
The Kingdom of Cambodia
- 3 인도네시아공화국  
The Republic of Indonesia
- 4 라오인민민주공화국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5 말레이시아  
Malaysia
- 6 미얀마연방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7 필리핀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8 싱가포르공화국  
The Republic of Singapore
- 9 타이왕국  
The Kingdom of Thailand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Water

Water

Water

Water



## 물물물

물은 항상 변화하고 순환한다. 빛, 공기, 땅의 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태와 질감, 움직임을 바꾼다. 사람들은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소리를 들으며 정서에 변화를 느낄 뿐 아니라 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도입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치작품 <물물물>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감각적, 현상적 특성을 재현한다. 영상과 음향, 여러 겹으로 중첩된 얇은 직물 스크린으로 구현한 작품은 물의 보편성을 담아낸다. 관람자는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와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 자연물로서의 물, 물과 함께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삶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 Mul Mul Mul

Water changes and circulates constantly. Closely responding to and interacting with its surroundings including light, air, and landforms, water undergoes constant shifts in form, texture, and movement. While observing these movements and listening to the sounds of water, people experience diverse emotions, often reflecting on themselves through water.

The video installation *Mul Mul Mul* explores the physical, phenomenal, and sensory properties of water. Comprised of video, sound, and multiple layers of fabric screens, the work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Visitors are invited to bring together their emotions and interpretations of water with the help of visual and surround-sound features. The work strives to rediscover water as a natural substance, a part of our world, and a source of human life.

서동주, 김민재, 편광훈  
Dongjoo Seo, Minjae Kim, Ken Pyun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천 스크린  
Single-channel Full HD video, multi-layered fabric screens  
5' 00"  
2019







# WATER IN ASEAN — LINGUISTIC EXPRESSION

## 아세안의 물 — 언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물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물질 상태의 물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언어로 표현해왔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인 사회 관습적 체계이므로 하나의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질문화와 생활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하는 물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봅니다. 물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물의 성질이나 소리를 설명하는 의성어와 형용사 등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언어 표현을 비교해 봅니다.

Water is vital for life—wherever we can find life, we can find water. This dependency and abundance explain humanity’s careful observ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water and its materiality, as well as our ability to depict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through diverse linguistic expressions. After all, language is a system of social conventions that reflects the thoughts, values, and way of life of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This section explo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inguistic expressions from the 10 ASEAN member states. It features words related to water in languages used in ASEAN countries, from nouns signifying water to verbs describing its movement and onomatopoeia that imitates its sound.



아세안 10개국 물 관련 표현

Water Related Expressions  
in 10 ASEAN Countries

한국 Korea 한국어 Korean	물	똑똑 똑똑
영미권 English-speaking Nations 영어 English	water	plip plip ploop plip dibble dibble dopp dopp dot a dot dot flick a flack flack pitter-patter spack a speck speck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말레이어 Malay	air aing ayer aying empa danur	tup tap tup tap
캄보디아 Cambodia 크메르어 Khmer	ទឹក	គឹក គក់ ប្លលឹក ប្លលក់ ភ្លើម ភ្លុយ ប្លលឹក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Indonesian	air	tik tik tik
라오스 Lao PDR 라오어 Lao	ນ້ຳ	ປ້ອກ ແປ້ກ ປ້ອກ ແປ້ກ ຈ້ອມ ຈ້ອມ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어 Malay	air	tik tik tik
미얀마 Myanmar 버마어 Burmese	ရေ	တစ်စက်စက်
필리핀 Philippines 영어/타갈로그어 English/Tagalog	tubig	tuktuktuk
싱가포르 Singapore 영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English/Mandarin/Malay/Tamil	water 水 air ڤڤڤ	滴答滴答 滴滴答答 படுபடபடுபட
태국 Thailand 타이어 Thai	น้ำ	ตึงตึง
베트남 Viet Nam 베트남어 Vietnamese	nước	tí tách

첨병	흐른다
splash	flow
bum bam bum bam	mengalir
ហ្លាច់ ឆាច់ ផាច់	ហូរ
jebur	mengalir
ຈ້ອມແຈ້ມ ຈ້ອມແຈ້ມ	ໄຫຼ
plup, gedebus	mengalir
ဗွမ်း	စ :ဆင်း သည်
tilamsik	agos, daloy
濺 தட்டமெனல்	flow 流 mengalir பாயும்
ສາດ	ไหล
tung tóe	chảy



water  
flow

air

bum bam  
bum bam

mengali

น้ำ

น้ำ

น้ำ

je'n

น้ำ

水

น้ำ

## 아세안의 물 - 언어 Water in ASEAN - Linguistic Expression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물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물질 상태의 물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언어로 표현해왔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인 사회 관습적 체계이므로 하나의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하는 물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봅니다. 물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물의 성질이나 소리를 설명하는 형용사 등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언어 표현을 비교해 봅니다.

Water is vital for life and thereby e life exists. Humanity has coexisted with water whilst also carefully ob interpreting this substance, depict characteristics of water through d expressions. Language is a system conventions that reflect the thou and way of life of a particular grou that it is used and understood by.

This section features words relate languages used in ASEAN countrie signifying "water" to verbs descri movement of water and examples that imitate the sound of water, 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ing expressions of the ten ASEAN men





## 우리의 물

한국에서 물을 저장할 때 사용했던 옹기  
항아리에 물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물과 관련한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언어가 영상으로 나타난다.  
표현법은 달라도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물방울처럼 맺히고 흘러내리며 하나의 큰  
물로 합쳐지고, 크고 작은 옹기 항아리가  
이들을 담아낸다.

홍민아 Minah Hong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실 스크린  
Single-channel Full HD video, multi-layered thread screens  
4' 00"  
2019

## Water for Us

This installation features a succession of  
words related to water in various ASEAN  
languages. The words take the form of  
falling drops of water which collect in  
different-sized *onggi*, traditional Korean  
water storage jars.



## 옹기 항아리

전시에 소개된 옹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옹기 제작기법 중 하나인 첻바퀴 타림법으로 제작되었다. 흙을 넓게 펴서 판처럼 만들어 기벽을 쌓아올리는 첻바퀴 타림법은 빠른 속도로 큰 항아리를 완성할 수 있는 성형 기법으로, 옛날부터 대형 물 항아리의 제작에 널리 사용되었다.



## Onggi Jars

The jars on display were produced using the slab building technique, a traditional Korean pottery method which involves the building of clay slabs on a wheel. This technique allows a large vessel to be comple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thereby been commonly used since ancient times to construct large jars for storing water.



오향중, 정희창  
Hyangjong Oh, Heechang Jung  
옹기점토, 재유  
Onggi clay, ash glaze  
2018-2019

# WATER IN ASEAN — NARRATIVES

## 아세안의 물 — 설화

아세안 각국의 물 관련 설화를 소개합니다. 설화는 한 집단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구성원들의 생활상과 풍습을 담아냅니다. 바다와 강, 호수 등을 통해 자연 상태의 물을 접한 아세안인들은 물의 신, 물의 공주와 같은 신적 존재를 창조해내거나, 국가의 기원을 물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건국신화를 서술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형이나 지명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로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물 관련 설화에 나타난 다채로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각 국가에서 공유하는 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봅니다.

This section introduces water-related myths, legends, and folklore from the ASEAN region. These stories, which are transmitted and circulated among members of a culture, embody the traditions and customs of the cultural groups found in the ASEAN member states. Constant exposure to oceans, seas, rivers, and lakes, led to the development of deities and spirits of these waters, as well as myths describing how water shaped the formation of many of the ASEAN nations or gave rise to certain geographical features. Explore each ASEAN member state’s view of water through the literary imagination captured here in a wealth of narratives.



# 아세안의 물 - 설화 Water in ASEAN - Narratives

아세안 각국의 물 관련 설화를 소개합니다. 설화는 한 집단 사이에 전파되는 이야기로 구성원들의 생활상과 통속을 담습니다. 바다의 경, 로수 등을 통해 자연 상태의 물을 접한 아세안인들은 물의 신, 물의 공주 등 신적 존재를 창조해내거나 물과 관련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전국신화를 서술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형이나 지역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로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물 관련 설화에 나타난 디케르론 문학의 상상력을 통해 각 국가에서 공유하는 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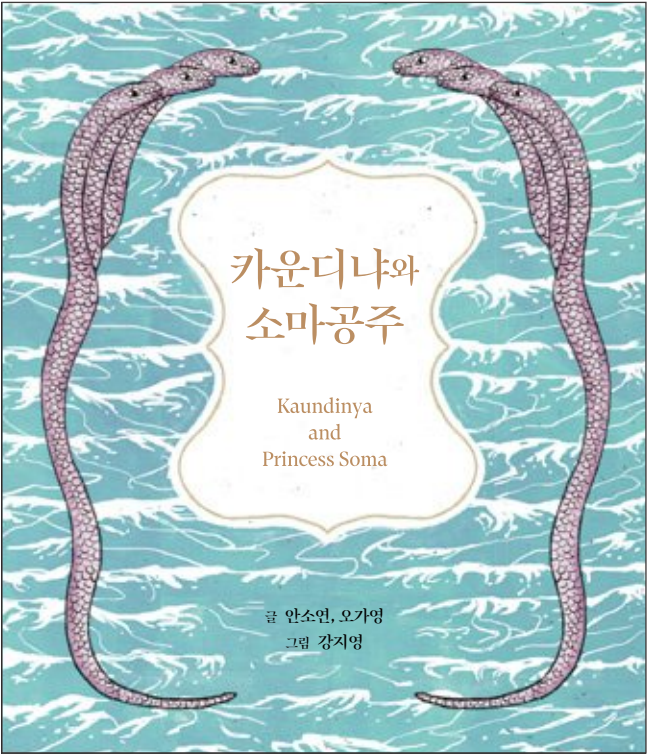
This section introduces myths, legends, and fables from ASEAN countries that are related to water. These stories, which are transmitted and created among members of a culture, embody the traditions and customs of the relevant cultural group. Constantly exposed to bodies of water, such as oceans, seas, rivers, and lakes, peoples of the ASEAN region invented deities and spirits of the waters that surround them as well as myths describing how their nations were founded with regard to water. They also formulated and told tales explaining particular geographical features of their countries. Explore each ASEAN member state's view of water that is captured in the literary imagination of a wealth of narratives.





카운디냐와 소마공주  
Kaundinya and Princess Soma  
안소연, 오가영 글 | 강지영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Jiyoung Kang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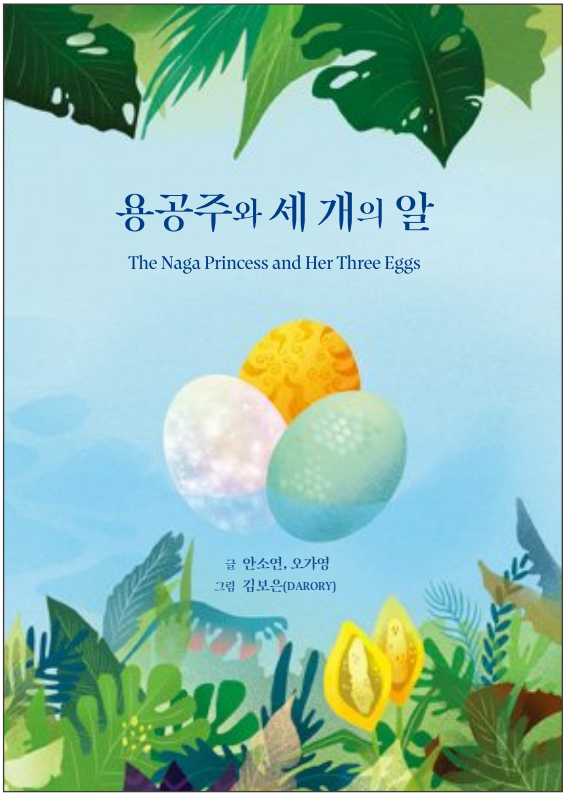
이 도서는 아세안문화원이 주최한  
《아세안의 삶과 물》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his book has been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organized by the ASEAN Culture House.





용공주와 세 개의 알  
The Naga Princess and Her Three Eggs  
안소연, 오가영 글 | 김보은 (DARORY)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Boeun Kim (DARORY)  
2019

이 도서는 아세안문화원이 주최한  
《아세안의 삶과 물》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his book has been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organized by the ASEAN Culture House.





깊은 물 속의 두 친구  
A Tale of Two Underwater Friends  
안소연, 오가영 글 | 홍그림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Grimm Hong  
2019

이 도서는 아세안문화원이 주최한  
《아세안의 삶과 물》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his book has been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organized by the ASEAN Culture House.







머라이언 Merlion  
강지영 Jiyoung Kang  
종이에 과슈 Gouache on paper  
34.0 x 34.0 cm  
2019

## 머라이언 이야기 The Story of the Merlion

말레이 연대기에는 싱가포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리비자야 왕국<sup>1</sup>의 상닐라우타마<sup>2</sup> 왕자가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큰 바위에 올라 바다 너머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은 자바어로 ‘해안 도시’라는 의미를 지닌 ‘테마섹’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왕자는 직접 그 섬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자 일행이 테마섹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짙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왕자는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왕관을 거친 파도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다의 신이 왕자의 선물을 받아 그 즉시 폭풍이 잠잠해졌고 왕자 일행은 무사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와 그의 부하들은 배에서 내려 해안가를 따라 섬을 탐색하다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마치 사자처럼 생긴 동물을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 도시를 세운 후 이름을 ‘싱가푸라’라고 지었습니다. 싱가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이자 마스코트인 머라이언은 이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라이언의 ‘머’는 ‘바다’를 ‘라이언’은 ‘사자’를 의미하는 말로, 싱가포르에서 머라이언은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상상의 동물을 지칭합니다. 머라이언의 사자 머리는 고대에 섬을 배회했던 고귀한 동물을 표현하며 싱가포르가 “사자의 도시”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머라이언의 물고기형 몸체는 바다와 깊은 관련을 맺었던 싱가포르의 옛 이름 “테마섹”을 떠올리며, 도시의 기원이 과거에 번창했던 해양 항구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The *Malay Annals* offers a hint to the origin of Singapore. According to the Annals, one day, Prince Sang Nila Utama<sup>1</sup> of the mighty Sri Vijaya Empire<sup>2</sup> went hunting with his men. He reached a rock of great height and size, which he mounted and spotted an island across the sea. The island was known as *Temasek*, which means “sea town” in Javanese. The Prince, curious of the island, declared an expedition.

As they made their journey to the island, dark clouds began to gather, the wind howled ferociously, and waves surged higher and higher. In spite of the fierce storm, the Prince remained calm, as he knew exactly what to do. Taking the crown from his head, he cast it out to the turbulent waters as a gift to the God of the Sea. At once, the waters calmed, and the Prince and his men were given clear passage for the remaining journey and were able to reach the island of Temasek.

The Prince and his men got off the boat and began their exploration of the island along the beach, when they discovered a never-before-seen mysterious animal. Thinking the sighting of the lion-like animal was an auspicious sign, the Prince decided to build a city there and named it Singapura, meaning “lion (*singa*) city (*pura*)” in Sanskrit.

The Merlion, the symbol and mascot of Singapore, was developed based on this legend. Combining “mer” – meaning the sea – with lion, Merlion is a mythical creature with a lion’s head and the body of a fish. The lion head honors the integrity of the noble creature encountered symbolizing Singapore as a “Lion City,” and the fish tail expresses a humble tribute to Singapore’s everlasting connection to the sea and is a reference to the ancient name of Singapore, Temasek.

1 스리비자야(650~1377)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기반으로 한 왕국으로, 인도네시아 군도의 대부분을 장악한 최초의 통일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2 상닐라우타마는 싱가푸라 왕국의 창시자로, 1299년 왕국을 설립하고 1347년 사망할 때까지 1대 군주로 재임했다.

1 Sang Nila Utama founded the Kingdom of Singapura in 1299 and ruled the island until his death in 1347.

2 Srivijaya (650~1377) was a kingdom based on the island of Sumatra, Indonesia. It was the first unified kingdom to dominate much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루뭇 룬땡 Lumut Lunting  
 김보은 Boeun Kim  
 핸드 드로잉, 디지털 컬러링, 디지털 인쇄  
 Hand drawing, digital coloring, digital printing  
 39.3 x 54.5 cm  
 2019

## 루뭇 룬땡 : 브루나이 강에 있는 작은 바위섬 Lumut Lunting : A Small Island in the Brunei River

14세기경 브루나이 다루살람 마자파히트<sup>1</sup> 왕국에서는 닭싸움(투계)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는 통치자였던 아왕 알락 브따따르의 조카 아왕 세누아이가 기른 수탉이 닭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수탉의 이름은 무띠아라였다. 마자파히트 왕국에서는 아스마라라는 이름의 수탉이 강하고 똑똑하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무띠아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마자파히트의 왕 라덴 앙수가 데와는 왕국의 명예를 건 닭싸움을 제안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대표하는 수탉 무띠아라가 이길 경우, 마자파히트 왕국이 브루나이 다루살람에게 보물을 가득 실은 40척의 배를 보내주고, 마자파히트를 대표하는 수탉 아스마라가 이길 경우, 브루나이 다루살람이 마자파히트 왕국에 영토 일부를 내주는 조건이었다.

무띠아라를 믿었던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왕은 마자파히트 왕의 조건을 승낙했고 두 나라를 대표하는 닭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닭싸움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마자파히트의 아스마라가 깊은 부상을 입고 패배했다. 아스마라는 무아라 해변 근처로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바위가 되었다. 그 바위는 현재 ‘벨롱벨롱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마자파히트의 왕은 무띠아라에게 저주를 내렸고, 저주 때문에 무띠아라도 브루나이 강에 던져져서 바위가 되었다. 그 바위는 브루나이 강의 바위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섬을 ‘루뭇 룬땡’으로 부른다.

루뭇 룬땡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브루나이 왕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징조를 보여준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을 가로지르는 강 하구에 위치한 루뭇 룬땡은 물 위에 떠 있는 바위처럼 보이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이 섬이 물에 잠기면 왕 혹은 술탄이나 왕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현 술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일간 루뭇 룬땡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섬 주변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1 마자파히트(1293~1520)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를 중심으로 번영한 인도 자바시대 최후의 왕국이다.

Back in the fourteenth century, cockfights were quite popular in both the Empire of Majapahit<sup>1</sup> and Brunei Darussalam. In Brunei Darussalam, a rooster was known for its high win records. This champion cock was Mutiara, and it was owned by Awang Senuai, the nephew of Brunei Darussalam’s ruler, Awang Alak Betatar. In Majapahit, a rooster by the name of Asmara was said to be strong, smart, and possessed special powers.

Mutiara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King of Majapahit, Raden Angsuka Dewa, who proposed a fight between the two cocks. He dictated that should Mutiara – representing Brunei Darussalam – win, Majapahit will give 40 ships laden with valuable goods to Brunei. However, should Asmara – representing Majapahit – win, he will gain more territories of Brunei.

Highly confident of Mutiara, the Sultan of Brunei Darussalam accepted this proposal, and thus commenced the match. It was a close competition and fighting continued for a long time amidst cheering from excited spectators. But then, Mutiara landed a critical hit on Asmara. Asmara flew out of the ring into the sky to escape. Sadly, Asmara, seriously injured, succumbed to his wound and fell into the sea, becoming a rock island that is now known as Pilong-Pilongan. Mutiara gave chase to finish off his opponent but was cursed into an island by King of Majapahit, who had been angered by the defeat. The small island of Mutiara located in the Brunei River is known as Lumut Lunting.

Lumut Lunting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o Brunei Darussalam. This is because the island is believed to give off a signal when something bad may happen in Brunei or to the Sultan and his family. Located at the mouth of Brunei River, which flows through Brunei’s capital city of Bandar Seri Begawan, Lumut Lunting looks like a floating rock. What is interesting is that Lumut Lunting will never be under water no matter how high the water level rises. If it does, then that signals a bad omen or the occurrence of an untoward incident. In fact, when the father of the current Sultan passed away, Lumut Lunting was barely visible for three days, and its surroundings were covered in darkness.

1 Majapahit (1293-1520) was the last of the major Hindu empires of the Malay Archipelago. It was based in eastern Java, Indonesia.





메콩 라이트 Mekong Lights

홍그림 Grimm Hong

핸드 드로잉, 디지털 컬러링, 디지털 인쇄

Hand drawing, digital coloring, digital printing

39.3 x 54.5 cm

2019

## 메콩 라이트 : 메콩강에서 솟아오르는 불덩어리 Mekong Lights : Fireballs Rising Out of the Mekong River

메콩강에 어둠이 내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붉은 태양을 닮은 불덩어리가 강 깊은 곳에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관찰될 때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테니스 공만 한 불덩이들은 250킬로미터에 달하는 메콩강 유역에서 산발적으로 날아올라가며 낯설고 신비로운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불덩이들이 솟아오르는 동안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불덩이들은 태국어로 บั้งไฟพญานาค(방 파이 파야 낙)라고 불리며, 나가 파이어볼(Naga fireball), 메콩 라이트(Mekong light) 혹은 유령 불(Ghost light)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해마다 태국 북동부 농카이 주와 라오스 사이의 메콩 강을 따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메콩 강에 살고 있는 거대한 나가 뱀신이 부처가 돌아오시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로 불을 쏘아 올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메콩 라이트는 파야 낙 축제 기간에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파야 낙 축제는 불교에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안거(安居)가 끝나는 시기(음력 11월 보름, 보통 10월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열리고 있습니다. 메콩 라이트의 발생 이유가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역민들은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종교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When night falls on the evening of a full moon, blazing balls of light emitting a reddish color shoot up from the Mekong River and rise into the air. Dozens of these fireballs, usually in the size of a tennis ball, appear along a 250-kilometer-long stretch of the River, creating a strange yet wondrous sight. Thousands of people gather to observe these bursts of light, often wishing on them. These glowing balls are known as “bung fai paya nak” (บั้งไฟพญานาค) by the Thai locals and are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Naga fireballs,” “Mekong lights,” or “Ghost lights.”

This phenomenon is said to be seen annually on the Mekong, along the part that separates the Nong Khai province in northeastern Thailand from Laos. According to local mythology, a giant serpent-king, Naga, resides in the Mekong riverbed, and the orbs of light are actually the breath exhaled by the Naga to welcome Buddha and his return to Earth. In fact, the fireballs are most often reported to appear during the Phayanak Festival at the end of the Buddhist Lent (on the 15th day of the 11th Lunar month, which is a full moon that usually falls in October). Although the origin of the lights remains unknown, the locals celebrate their religious faith and convey their wishes for happiness and prosperity through the mysterious phenomenon.

# AQUATIC HOUSING IN ASEAN

## 아세안의 수상가옥

수상가옥은 물 위에 지은 집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자리잡은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해안가, 호숫가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아세안의 수상가옥은 말뚝을 박아 고정하고 건물을 지어서 물 위에 뜬 집처럼 보이는 말뚝식 수상가옥과 실제로 배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은 배 모양의 건물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호수나 강, 바닷속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수상가옥은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 기후,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 긴 우기와 짧은 건기를 가지는 열대 몬순기후를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은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수상가옥을 짓고 생활해왔습니다.

수상가옥에서는 무더위와 해충을 피하고,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낚시 등을 통해 식량자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의 수상가옥을 대표하는 예로는 16세기경 브루나이 강 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캄퐁 아예르(브루나이 다루살람), 톤레삽 호수 근처에 조성된 캄퐁 클레앙(캄보디아), 인레 호수에서 살아가는 인타족 마을(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하롱베이 주변, 태국 짜오 프라야 강 주변, 라오스 메콩강 유역, 필리핀 남부 술루 해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 말레이시아 페낭 쉐 제티 등에서도 독창적인 수상가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quatic housing refers to homes for people who live in and around rivers, lakes, and seas. This housing style is quite common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of its geography. Different types of aquatic housing can be found in the ASEAN region, including stilt houses, which are stationary and look as if they are floating on water, and boat houses, which are designed to move.

Stilt houses are wooden houses built on raised platforms anchored in lakes, rivers, or the ocean. Stilt house settlements are well-suited to the hot and humid climatic conditions of the ASEAN region, where rainfall occurs year-round, the monsoon season is long, the dry season is relatively short, and the temperature does not fall below 18 degrees Celsius even in the coldest months.

In addition to relief from heat and protection from vermin, stilt houses offer easy access to food and potable water. In ASEAN, notable examples of these houses can be found in the floating villages of Kampong Ayer on the Brunei River, first established around the 16th century in Brunei Darussalam; Kompong Khleang, situated on the banks of the Tonlé Sap Lake in Cambodia; and the settlement area of the Intha tribe over the waters of Inle Lake in Myanmar.

Other uniquely-styled “floating homes” are found around Ha Long Bay in Vietnam, the Chao Phraya River in Thailand, the Mekong River in Laos, the Sulu Sea Basin in the Philippines, the southern region of the Indonesian island of Sumatra, and the Chew Jetty in Penang, Malaysia. People in these areas live in boat houses designed to be movable when necessary.





- 1. ASEAN
- 2. ASEAN
- 3. ASEAN
- 4. ASEAN
- 5. ASEAN
- 6. ASEAN
- 7. ASEAN
- 8. ASEAN
- 9. ASEAN
- 10. ASEAN



### 아세안의 물 - 언어

Water in ASEAN - Linguistic Expression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아세안이 물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물과  
아세안 문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문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문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Water is the  
element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ASEAN  
culture. It is the  
element that  
represents the  
essence of ASEAN  
culture. And it is  
the element that  
represents the  
essence of ASEAN  
culture.

This section  
represents the  
essence of ASEAN  
culture. It is the  
element that  
represents the  
essence of ASEAN  
culture.





## 캄퐁 아예르의 수상가옥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퐁 아예르의 수상가옥을 소개합니다. 캄퐁 아예르는 현재 약 13,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상마을입니다. 수상가옥이 모여서 수상마을을 형성하여 학교와 병원, 시장, 소방서 등 모든 시설이 물 위에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은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 때문에 공기 순환이 원활하도록 천장이 높고 문이 넓은 모습입니다. 집과 집 사이는 나무 통로로 이어져 있고, 멀리 떨어진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워터 택시라고 불리는 소형 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Stilt Settlement in Kampong Ayer

This section features the stilt settlement of Kampong Ayer in Brunei Darussalam. Kampong Ayer is the world's largest water village, currently inhabited by approximately 13,000 people. In actuality, it is a cluster of villages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hospitals, markets, and fire stations. The structures of Kampong Ayer suit the local climate,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humidity and precipitation: elevated ceilings and wide doors allow for increased airflow. The entire settlement is accessible by wooden plank walkways, but those who wish to travel at a slightly quicker pace are welcome to try the small motor boats that serve as the village's water taxis.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수상가옥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보트 모형과 통발 모형이다. 보트는 수상 가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이고, 통발은 어로 생활에 유용한 도구이다. 전시에 소개한 보트 모형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These models provide visitors with a look at life in a stilt settlement in Brunei Darussalam. The boat on display, coated in colors that call to mind Brunei's national flag, is representative of the mode of transportation used in water villages. Next to the boat is a fishing tackle, a tool for an activity that is practiced as a source of food and income.



**보트모형 Boat Model**  
 나무에 채색 Painting on wood  
 높이(H) 9.0 cm, 길이(L) 52.2 cm, 폭(W) 10.1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통발 모형 Fishing Tackle Model**  
 나무 Wood  
 높이(H) 32.0 cm, 최대지름(D) 15.2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 WATER AND DAILY LIFE IN ASEAN

## 아세안의 일상과 물

사람들은 일상에서 물을 직접 마시고 음식을 조리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식수를 확보하고 세탁, 목욕과 같은 생활용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강이나 호수, 우물부터 주거공간까지 물을 담아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세안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물을 길고 저장하며 운반할 수 있는 도구로 나무나 도자기 공예품을 사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흙, 식물의 열매 등으로 만든 물동이, 물바가지, 물항아리, 물병 등은 환경에 적응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아세안인들의 솜씨를 잘 보여줍니다.

People in ASEAN use water every day for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drinking, cooking, washing, and cleaning. This makes it crucial to procure an adequate amount of water, often by collecting and carrying water home from natural sources such as rivers and lakes or facilities such as wells. Showcased in this section are objects designed for the collec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consumption of water, including buckets, scoops, jars, and vessels made of locally-sourced wood, clay, and the husks of fruits such as coconuts. These works display a keen sensitivity to the ASEAN environment and highlight the exquisite craftsmanship that can be found in the region.







라오스 소수민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수 회화이다. 라오스에는 40개가 넘는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과 건축양식, 복식 등이 다른 두 소수민족의 일상 풍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길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These embroidered artworks offer a glimpse into the lives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Laos. Laos is home to over 40 ethnic groups, each of which has a different lifestyle. These two works depict how two of these different ethnic groups, with distinct regional and architectural features, and styles of clothing, collect, transport, and consume water.



자수 일상풍경 Scenes of Everyday Life  
섬유, 자수 Embroidery on textile  
50.0 x 46.5 cm, 49.0 x 45.0 cm  
라오스, 2018 Lao PDR, 2018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다민족 이민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발견한 중국 후난성 양식의 물통이다. 느릅나무로 제작한 한 쌍의 물통은 손잡이 중앙부가 유독 볼록하게 솟아 있다. 물지게 등을 활용하여 물통을 운반할 때 효과적으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형태이다. 느릅나무 목재는 잘 휘면서 부러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목공예 재료로 자주 이용되었다.

This set of buckets from Singapore exhibits stylistic influences from the Chinese province of Hunan. Made of elm wood, the buckets feature unique handles that are raised in the center—a design that helps to balance the weight of the load when suspended on a carrying implement like a yoke. Elm wood is flexible yet durable and therefore often used in wooden handicrafts.



목제 물통 Bucket  
느릅나무 Elm wood  
높이(H) 41.1 cm, 최대지름(D) 30.2 cm  
높이(H) 41.2 cm, 최대지름(D) 30.4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샘이나 우물 등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 옮길 때 사용한다. 무게 중심이 위치한 가운데 부분이 활처럼 휜 모양으로 양 끝에 물통을 매달아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편하게 제작했다. 막대의 양 끝 위에 달린 동그란 장식은 물을 지고 이동할 때 물통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이다.

This is a pole used for carrying and transporting loads of water. It is curved outward from the center in a bow-like shape so that the concave parts can be fitted over and balanced on the bearer's shoulders. Round-headed pegs are affixed at the ends of the pole to keep the water loads in place.



목제 물지게 Carrying Pole  
나무에 옷칠 Lacquer on wood  
116.4 x 3.5 cm  
미얀마, 19세기 Myanmar, 19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다문화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발견한 중국 후난성 양식의 물통이다. 싱가포르는 인구의 70% 이상이 화교이므로 중국 남부 문화의 영향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물을 길고 이동할 때 사용했던 목제 물통은 내구성을 위해 손잡이와 몸통, 접지면 등에 금속판을 덧대었다.

Singapore is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mong its many demographic groups, the largest is Chinese, accounting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This has resulted in strong Chinese cultural influences in Singapore, such as the distinct local style of China's Hunan Province on display in these wooden buckets. These buckets, which were used for collecting and transporting water, have been reinforced with metal bands on the handle, body, and base for durability.



목제 물통 Bucket  
나무, 금속판 Wood, metal plates  
높이(H) 54.6 cm, 최대지름(D) 31.5 cm  
높이(H) 59.6 cm, 최대지름(D) 32.5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싱가포르에서 사용되었던 중국 후난성 양식의 바가지이다. 단단한 느릅나무로 물통을 만들고 손잡이를 덧붙여 제작했다. 전체적으로 유연한 곡선을 지니는 손잡이는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짧게 꺾으면서 마무리했는데, 바가지에 무거운 물을 담아 들어 올릴 때 편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구조이다.

This is a water bucket from Singapore made in the style of the Hunan region of China. Crafted from sturdy elm wood, the bucket's body features an attached handle with a gently sloping curve designed to fit comfortably in the hand to facilitate the act of collecting water.

목제 바가지 Bucket

느릅나무 Elm wood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26.5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팔라옥은 필리핀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토기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문양이나 색에 큰 변화 없이 유사한 모습으로 제작되어왔다. 토기는 표면이 거칠고 통기성이 높아서 요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분을 쉽게 배출시키므로 불 위에 직접 올려두고 조리할 때도 음식을 태우지 않고 완전히 익힐 수 있다. 필리핀 전통 국물요리인 시니강, 향신료를 넣고 졸여서 먹는 아도보 등을 요리할 때 사용한다.

The *palayok* is a type of earthenware cooking vessel used in the Philippines. Though *palayok* have been produced since ancient times, present day versions still largely resemble earlier examples, particularly in terms of pattern and color. Earthenware is characterized by its rough, porous surface which helps steam to evaporate quickly, thereby allowing food within to be thoroughly cooked without burning. This type of vessel can be used to cook various examples of traditional Filipino cuisine, such as *sinigang*, a clear soup flavored with sour fruit, and *adobo*, a dish of meat and vegetables braised in vinegar and soy sauce served with various toppings.

토기 항아리 - 팔라옥 *Palayok*  
토기 Earthenware  
높이(H) 18.0 cm, 최대지름(D) 27.1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라오스 도자기 마을 반짱에서 제작한 물  
항아리이다. 루앙 프라방 인근 메콩강가에  
위치한 반짱은 400여 년이 넘는 라오스의  
도자 제작지이다. 항아리들은 마을 주변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발물레로 형태를 만들어  
장작가마로 구워냈다. 검은 유약을 입혀  
광택을 내거나 음각 문양을 촘촘히 새겨  
장식을 더하기도 한다.

These are water storage jars crafted in  
Ban Chan, a village in Laos known for its  
pottery. Located on the northern bank of  
the Mekong River just downstream from  
Luang Prabang, the village has been a  
center of pottery production for more than  
four centuries. Ban Chan pottery is made  
of materials from the surrounding area,  
shaped on pottery wheels, and then fired  
inside a wood-fueled kiln. The resulting  
pottery is sometimes coated black or  
decorated with densely-packed engravings.



도기 항아리 Jar  
도기 Stoneware  
높이(H) 28.7 cm, 최대지름(D) 24.5 cm  
높이(H) 27.5 cm, 최대지름(D) 23.0 cm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25.5 cm  
라오스, 2019 Lao PDR, 2019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베트남 소수민족 참족의 도기 병이다. 각각 6잎, 5잎의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연 아래로 두 귀가 달려 있고, 양 귀에 둥근 고리를 매달아 놓았다. 어깨 부분에는 음각으로 추상적인 문양을 새겨 넣었다.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보다는 특별한 의식을 위한 물병이나 꽃을 꽂는 꽃병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These stoneware vessels were crafted by the Cham, an ethnic group in Vietnam. They are characterized by a curved open mouth resembling a flower, two big ears, and a ring on the neck. Abstract linear patterns have been carved around the shoulder. The decorative elements suggest that the vessels were used as water jars or flower vases for special occasions or ritual-related purposes, as opposed to being put to everyday use.

두 귀 달린 병 Bottle with Two Ears  
 도기 Stoneware  
 높이(H) 26.8 cm, 최대지름(D) 16.1 cm  
 높이(H) 26.7 cm, 최대지름(D) 16.9 cm  
 베트남, 시대미상 Viet Nam,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라부 사용은 말레이시아 페락 주 쿠알라 캉사르 인근에 위치한 사용 지역에서 제작한 도기 물병이다. 근처에서 채취한 점토를 잘 정제하여 조롱박 형태로 빚고 조약돌로 표면을 연마한 뒤, 다양한 문양을 새겨 장식한다. 이후 코코넛 껍질과 장작 등으로 연기를 입히고 오랜 시간 고온에서 구워낸 다음, 쌀겨 등으로 다시 한 번 구워내면 짙은 흑단색이 특징적인 라부 사용을 완성할 수 있다. 보통 식용수를 시원하게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한다.

This water bottle, known as a *labu sayong*, was commonly used in the village of Sayong, located near Kuala Kangsar in the Malaysian state of Perak. *Labu sayong* are made from fine-grained, purified local clay. Once the clay has been shaped into a gourd, the surface is polished with a pebble and decorated with various carvings. When fully dried, the vessel is smoked with coconut husks and firewood and then fired in a kiln for a prolonged period at high temperatures. Finally, it is fired with rice husks to obtain the rich ebony color that is its trademark characteristic. The completed vessel was usually used for storing drinking water while keeping it cool.

흑유 병 - 라부 사용 *Labu Sayong*

도기 Stoneware

높이(H) 37.1 cm, 최대지름(D) 18.5 cm

말레이시아, 시대미상 Malay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라부 사용은 말레이시아 페락 주 쿠알라 캉사르 인근에 위치한 사용 지역에서 제작한 도기 물병이다. 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조약돌로 표면을 연마하고, 코코넛 껍질과 장작 등으로 연기를 입혀서 고온에서 구운 다음, 쌀겨 등으로 다시 한 번 구워 완성한다. 광택이 흐르는 검은 표면에 섬세한 문양을 새겨넣어 장식을 더하기도 한다. 유려한 선으로 빚어진 긴 목은 다양한 도장무늬로 장식하고, 안정감 있게 넓은 몸통은 거친 천으로 눌러 찍어서 대조적인 질감을 표현했다.

*Labu sayong* refers to a type of water vessel from the village of Sayong, located near Kuala Kangsar in Perak, Malaysia. *Labu sayong* are made by shaping clay and then polishing its surface with a smooth pebble. Once completed, the vessel is first smoked with coconut husks and firewood and then fired at high temperatures. Finally, it is fired once more with rice husks. Its glossy, black surface is often further embellished with decorative carvings. This example of *labu sayong* features a long, exquisitely-curved neck adorned with various stamped motifs. The surface of the wide and stable body has been pressed with a rough fabric, creating a texture that contrasts with that of the neck.

흑유 병 - 라부 사용 *Labu Sayong*  
 도기 Stoneware  
 높이(H) 34.5 cm, 최대지름(D) 22.5 cm  
 말레이시아, 시대미상 Malay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 국자 Ladle

코코넛 열매 Coconut shell

높이(H) 8.6 cm, 길이(L) 62.0 cm

높이(H) 8.5 cm, 길이(L) 47.3 cm

높이(H) 6.6 cm, 길이(L) 33.6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라오스, 2018 Lao PDR, 2018

태국, 20세기 Thailand,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일상생활에서 물을 뜰 때 사용하는 국자이다. 아세안 국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코코넛 열매를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어 몸체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긴 손잡이를 붙여 완성했다.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사람들이 잡고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중간 즈음에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 편의성을 강조했다.

These ladles, used for scooping water, consist of two parts: a bowl made from the shell of a coconut and a long, wooden shaft that serves as a handle. The coconuts that make up the bowls are commonly cultivated in ASEAN, and the shafts of the ladles are elegantly curved, with a thin area in the middle designed to provide a comfortable grip.





툼 사이 남 두엠은 태국에서 식수를 담아 놓는 항아리이다. 철분이 많이 섞인 흙으로 모양을 빚은 후 유약을 바르지 않고 고온에서 구워 완성했다. 소재의 통기성이 높아 더운 날씨에도 물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거 태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항아리의 형태는 구연부가 말려 있고, 벌어진 어깨에 둥근 복부, 편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도자기의 영향이 엿보인다.

Known as *toom sai nam duem*, these are drinking water jars used in Thailand. The jars were made of clay with a high iron component and then fired at a high temperature without glaze. The porosity of the material helps to keep water cool even on hot days. This feature made this particular type of water jar a common household item, especially in the past. The jars feature a curled rim, broad shoulders, bulbous body, and flat base—influences from Chinese ceramics.



테라코타 항아리 – 툼 사이 남 두엠 *Toom Sai Nam Duem*  
테라코타 Terracotta  
높이(H) 39.7 cm, 최대지름(D) 30.7 cm  
높이(H) 19.8 cm, 최대지름(D) 16.9 cm  
태국, 21세기 Thailand, 21st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미얀마에서는 14세기경부터 마르타반 향아리라고 부르는 흑유 향아리를 제작했다. 미얀마 남부 마르타반 항구의 이름을 딴 이 향아리들은 물이나 술, 혹은 음식을 저장하는 대형 저장용기이다. 흙타래를 쌓아 올려 형태를 만들고 짙은 갈색의 흑유를 시유한 후 백색 슬립으로 선을 긋거나 점을 찍어 장식한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은 마르타반 향아리 양식으로 제작한 물 향아리로 특히 어깨 부분에 비를 기원하는 개구리를 세 마리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Black-glazed Martaban jars have been produced in Myanmar since the 14th century. These large jars, used as storage for water, liquor, or food supplies, are named for the southern port city of Mottama (previously known in Arabic as Martaban). The jars are usually created through a coiling technique, coated with dark brown glaze, and finished with line and dot decorations rendered with white slip. The example on display is a Martaban-style water vessel characterized by the three frog figures on its shoulder. The frogs are embodiments of wishes for rain.

개구리장식 흑유 향아리 Jar with Frog Figurines  
도기 Stoneware  
높이(H) 34.3 cm, 최대지름(D) 34.0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베트남의 밧짱 도자기 마을에서 제작한 항아리 한 쌍이다. 하노이 남동쪽 홍강 유역에 위치한 밧짱 도자기 마을은 베트남 북부 도자의 주요 생산지로 문양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첩화장식과 다양한 유약 사용이 특징이다. 이 항아리 한 쌍도 뚜껑에는 사자를, 몸통에는 매화나무와 봉황을 장식했는데, 문양은 입체적으로 붙이고 청채와 철채를 더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문양 소재와 항아리 형태에서 중국 도자기의 영향이 엿보인다.

This set of jars was produced in the village of Bat Trang in Vietnam. Situated southeast of Hanoi on the banks of the Red River, Bat Trang is a major production site for ceramics and is known for the use of a wide range of glazes and for appliqué decorations—a technique that involves adding a separately molded clay relief onto the surface of a piece of pottery. The two examples here feature a lion-shaped ornament on the top and relief moldings of plum blossoms and a pair of mythical birds on the body. The vessels are highly decorated with reliefs and colorful paintings in cobalt blue and brown. The overall form and decorative elements display slight influences drawn from Chinese ceramics.

백자양각다채 봉황문 항아리 Jar with Phoenix Design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17.5 cm

높이(H) 31.7 cm, 최대지름(D) 17.5 cm

베트남, 시대미상 Viet Nam,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열대 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박 열매로 만든 물병이다. 충분히 성숙한 박 열매를 골라 과실자루가 붙은 곳을 작게 잘라내고 속의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건조시켜 만들었다. 휴대용으로 물을 담아 이동할 수 있도록 잘록한 부분에 노끈을 감아 사용했다.

This water bottle was made from a gourd native to tropical areas of Asia. A fully-ripe gourd was sliced off from the stem, leaving a small hole at the top. The gourd was then hollowed out and dried. A braided cord is tied to the constricted section in the middle so that the bottle can be carried around with ease.

**호리병 Gourd Bottle**

박 열매, 노끈 Gourd, braided cord  
높이(H) 23.4 cm, 최대지름(D) 13.5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아시아 열대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박 열매로 만든 물병이다. 크고 잘 익은 박을 골라 속의 내용물을 비운 후, 건조시켜 만들었다. 둥근 몸통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대나무 줄기를 엮어 바구니 형태를 만들고 목부분까지 짜임을 엮어 올려 물통을 감쌌다. 어깨에 노끈을 연결하여 휴대에 편의성을 더했다.

This is a water container made from a gourd native to tropical areas of Asia. A large, ripe gourd was selected, hollowed out, and dried. This example is entirely encased in an openwork basket made of woven bamboo strips for enhanced stability. Long, braided cords are tied to the shoulders to serve as a handle, making the container easy to carry.

#### 호리병 Gourd Bottle

박 열매, 대나무, 노끈

Gourd, bamboo, braided cord

높이(H) 30.3 cm, 최대지름(D) 17.5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물을 담아 이동할 때 사용한 물 항아리이다. 거친 흙으로 항아리 형태를 만들고 갈색 유약을 씌워 완성한 후 대나무 줄기를 엮어 이동용 걸고리를 부착하였다. 물 항아리는 공처럼 둥그란 몸통으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들고, 입구는 좁은 형태로 마무리하여 이동할 때 속의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했다.

This is a jar for carrying water during travels. It is made of coarse, textured clay that has been fired with a brown glaze. The jar is encased by hanging loops of bamboo strips. The globular body allows for a large amount of water to be stored, while the long and narrow neck prevents spills while walking or moving.

#### 갈유 항아리 Jar

도기, 대나무, 노끈

Stoneware, bamboo, braided cord

높이(H) 31.4 cm, 최대지름(D) 25.0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대나무에 옷칠을 입힌 한 쌍의 잔이다.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진 두 잔은 구연부에만  
주칠을 하고 내외부 전면에 흑칠을 했다. 흑칠  
표면에 음각으로 새긴 문양은 식물의 형태를  
도안화하여 연속적으로 그려낸 당초문이다.  
잔의 크기는 작지만 표면 가득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어 화려한 느낌을 준다.

This is a set of cups made of bamboo and  
coated with lacquer. The two cups, which  
are almost identical, are black both inside  
and out, with red rims. Though small in  
size, they are ornately decorated with  
exquisitely etched vine patterns.



칠기 잔 Lacquered Cup  
대나무, 옷칠 Bamboo, lacquer  
높이(H) 6.1 cm, 최대지름(D) 6.5 cm  
높이(H) 6.1 cm, 최대지름(D) 6.5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머라이언 문양을 새겨 넣은 청자 잔이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머라이언은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가진 상상의 동물이다.  
사자의 머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를 의미하는 ‘싱가푸라’에서 유래했고,  
물고기의 몸은 항구 도시를 상징한다.  
간략하지만 특징적으로 묘사된 사자의  
갈기와 물고기의 꼬리는 푸른 청자 유약이  
고이면서 은은한 장식 효과를 가진다.

This set of celadon cups features carved  
Merlions. The Merlion is a mythical creature  
with the head of a lion and the body of  
a fish. The head of the beast represents  
Singapore’s original name, Singapura,  
which means “lion city” in Sanskrit. The fish  
tail is a reference to the nation’s beginnings  
as a sea town. On these cups, the Merlion’s  
simply yet distinctively depicted mane and  
tail combine with the green glaze to create  
a delicate decorative effect.



청자양각 머라이언 문양 잔 Celadon Cup with *Merlion* Design  
청자 Celadon  
높이(H) 6.3 cm, 최대지름(D) 7.1 cm  
높이(H) 6.2 cm, 최대지름(D) 7.0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대나무 줄기로 뼈대를 잡고 말 꼬리털을  
 촘촘하게 감아 완성한 잔이다. 내부 전면과  
 구연부에 흑칠을 입혀서 물을 담아도 새지  
 않도록 만들었다. 귀한 재료로 공들여 제작한  
 공예품으로, 붓다에게 공양하는 정수를 담은  
 불교 의례품이다.

This cup is characterized by horsehair  
 woven onto a frame of bamboo strips.  
 The inner surface and rim are coated  
 with lacquer to prevent water from  
 leaking. Carefully crafted with valuable  
 materials, this cup was used as a ritual  
 vessel to hold purified water when  
 making offerings to Buddha.



말총 잔 Cup  
 대나무, 말총, 옷칠 Bamboo, horsehair, lacquer  
 높이(H) 8.4 cm, 최대지름(D) 10.0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백자로 코끼리 형태를 만들고 산화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장식한 청화백자 주자이다. 코끼리 몸통에 그려진 국화꽃 줄기에 작은 나뭇잎을 용수철처럼 꼬아 놓은 문양은 막 왕조시대(1527~1677) 청화백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다. 코끼리가 코로 물을 뿜는 모습을 관찰하고 코끼리 코를 주자의 물부리로 제작한 점이 흥미롭다. 깨지기 쉬운 모서리 부분에 금속을 덧대어 실용성을 높였다.

This is a ewer in the shape of an elephant with an underglaze decoration in cobalt blue. The chrysanthemum blossom, found on the body of the elephant amongst leafy vine scrolls, is a common decorative motif of blue-and-white porcelain from the Mac dynasty of Vietnam (1527–1677). The elephant's trunk functions as a spout and delicate areas such as the corners and bottom have been fortified with metal bands and plates for practicality.

백자청화 코끼리형 주자 Elephant-Shaped Ewer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17.7 cm, 22.3 x 13.3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백자로 연꽃잎을 연상시키는 납작한 형태의 주자를 만들고 뚜껑 위에 두꺼비 장식을 올렸다. 물을 담아내는 주자를 만드는데 연못과 관련한 소재를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 어두운 발색의 청화 안료로 베트남 전통 청화백자의 문양 소재를 장식했다. 이미 깨진 부분이나 깨지기 쉬운 부분에 금속판을 덧대어 장식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This ewer is shaped like a lotus leaf and features a lid topped with a toad ornament. This distinctive water vessel employs pond-related motifs and features traditional designs in cobalt blue, common to blue-and-white Vietnamese porcelain. Existing cracks and areas that are vulnerable to cracks have been reinforced with metal decorations for enhanced practicality.

백자청화 두꺼비 장식 뚜껑 주자 Ewer with Toad-Shaped Lid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11.5 cm, 24.5 x 16.3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주전자와 퇴수기 Kettle and Strainer

알루미늄 Aluminum

높이(H) 15.0 cm, 총길이(L) 25.0 cm

높이(H) 5.0 cm, 최대지름(D) 20.0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중요한 의식이나 식사를 앞두고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주전자와 퇴수기이다. 퇴수기 위에 손을 올리고 주전자의 물을 부어 더러움을 씻어내며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다.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전면을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했다.

This kettle and strainer set is used in Brunei Darussalam to wash one's hands before an important ritual or meal. Water from the kettle is poured over the hands, which are placed over the strainer, as a means of washing away impurities as well as purifying the mind. This set is made of aluminum to ensure convenient, everyday use. It is highly ornate, with elaborate designs covering its entire surface.





그릇 전면에 두들긴 자국이 무늬처럼 남아 있는 은제 발이다. 열을 가해 부드럽게 된 금속을 두들기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단조기법을 사용했다. 용기의 구연부는 꽃잎 모양으로 다듬어 단순하지만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일상생활보다는 의례에서 정수를 담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ilver bowl shows traces of hammering. It was crafted using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raising and sinking, which involve heating metal and molding it into the desired shape with a hammer. The wavy and petal-like rim of the bowl is simplistic in design yet offers a decorative effect. This bowl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for holding water for special rituals rather than for daily use.

은제 발 Bowl  
은 Silver  
높이(H) 11.8 cm, 최대지름(D) 16.4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캄보디아에서는 구리나 황동으로 제작한 용기 중에 특히 받침을 가진 대접을 프틸캇이라고 부른다. 보통 뚜껑과 대접, 받침이 한 조를 이루어 의례에서 정결한 물을 담아놓을 때 사용했다. 특별한 문양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면에 화려하게 문양이 새겨지기도 한다. 용기와 받침 표면에 음각으로 연속 꽃 무늬를 새긴 프틸캇은 받침에 가려지는 용기의 바깥 바닥에도 큰 상아를 지닌 코끼리 한 마리가 새겨져 있다.

In Cambodia, *phtil khat* refers to a copper or brass bowl with a pedestal. Usually comprised of a lid, bowl, and pedestal, *phtil khat* are used for holding holy water in ritual ceremonies. They are usually undecorated but sometimes feature intricate etchings. This particular example features floral designs that have been carved in the surfaces of the bowl and pedestal. On the bottom of the bowl in an area hidden by the pedestal is an image of an elephant with long tusks.







구리 물그릇 - 프틸캇 *Phlil Khat*

구리 Copper

높이(H) 30.1 cm, 최대지름(D) 23.1 cm

높이(H) 24.3 cm, 최대지름(D) 22.2 cm

캄보디아, 20세기 Cambodia,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발우는 식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파트라에서 유래한 말로, 탁발행렬 중 승려, 비구니 및 수련승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양받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때때로 절에서 신성한 물을 담아두기도 한다. 본래 점토나 검은 철판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커다란 사발을 지칭하지만 현대 대부분의 사원에서는 가볍고 세척이 쉬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An alms bowl, known as a pātra (“vessel”) in Sanskrit, is used by Buddhist monks, nuns, and novices for collecting offerings from lay persons. It is also sometimes used in temples to hold sacred water. Alms bowls were traditionally made of clay or black steel, but most contemporary examples are made of stainless steel, a material that is lighter in weight and easier to clean.



**발우 Alms Bowl**

스테인레스스틸, 합성섬유

Stainless steel, synthetic fibers

높이(H) 26.9 cm, 최대지름(D) 26.6 cm

라오스, 21세기 Lao PDR, 21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필리핀에서 루손 섬 다음으로 큰 섬인  
민다나오의 마이툼 지역에서 제작한  
얼굴장식 단지이다. 마이툼 단지는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다른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형식의 도기로, 필리핀 선사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형상화하여 표현한 단지는 장례 및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This is a jar with an anthropomorphic  
design produced in the Maitum region of  
Mindanao,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the Philippines after Luzon. This unique  
type of pottery has been discovered only  
in the Philippines and has provided a  
significant glimpse into the prehistory of  
the nation. Maitum jars, with their simple  
representations of the human face, may  
have been used for funerary and other  
important ritual practices.

얼굴장식 단지 - 마이툼 단지 Maitum Jar  
토기 Earthenware  
높이(H) 19.4 cm, 최대지름(D) 16.1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토기 주자 - 켄디 *Kendi*

토기 Earthenware

높이(H) 12.9 cm, 16.4 x 15.0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켄디는 산스크리트어로 정병을 뜻하는  
쿤디카에서 유래한 말레이 용어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제작된 일상  
용품이자 의식용품으로, 필리핀에서는 약  
10세기경부터 생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토기로 만든 켄디는 통기성이 높아서 더운  
지방에서도 물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Kendi* is a Malay term derived from the  
Sanskrit word *kundika*, which means “ritual  
pouring vessel.” *Kendi* were produced in  
abundance in Southeast Asia, used both  
in rituals and daily life. Examples from the  
Philippines date back to the 10th century.  
Earthenware *kendi* feature porous surfaces,  
making it possible to keep water cool even  
in hot, rural regions.



켄디는 산스크리트어로 정병을 뜻하는  
 쿤디카에서 유래한 말레이 용어이다.  
 쿤디카는 본래 승려가 지녀야 할 지물  
 중의 하나에서 유래되었고 깨끗한 물을  
 담아 부처에 바치는 공양구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둥그스름한 몸통에 구근  
 모양의 주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는 목  
 위로 뚜껑 형태의 둥근 테가 놓여있다.  
 이 전시품은 동부 자바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 사원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왕위 대관식에서 성수를  
 담아 사용하기도 한다. 서부 자바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켄디에 담아둔 물로 신부가  
 신랑의 발을 씻겨주어 백년가약을 맺고  
 깨뜨리는 전통도 있다. 망자에게 사후세계  
 내내 목마름을 잊게 해준다는 의미로  
 무덤에 함께 부장하기도 한다.

The Malay term *kendi* is derived from  
 the Sanskrit word *kundika*, which means  
 “ritual pouring vessel.” A *kundika* was  
 known to be one of the 18 ritual objects  
 carried by a Buddhist monk and was used  
 to make offerings of purified water to  
 Buddha. In general, *kendi* feature  
 a rounded body, bulbous spout, and  
 a flange on the narrow neck. This piece  
 was produced in East Java in Indonesia,  
 where *kendi* are used during religious  
 rituals at temples and coronation  
 ceremonies to hold holy water. In West  
 Java, they are used during wedding  
 ceremonies to hold water that the bride  
 uses to wash the groom's feet. After the  
 couple has said their vows, the vessel  
 is broken. In the past, *kendi* were also  
 buried with the deceased during  
 funerals as a symbol of providing water  
 eternally in the afterlife.



도기 주자 - 켄디 *Kendi*  
 테라코타 Terracotta  
 높이(H) 10.8 cm, 19.7 cm x 16.4 cm  
 인도네시아, 시대미상 Indone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 WATER AND RITUALS IN ASEAN

## 아세안의 의례와 물

아세안 사람들에게 물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정신적 상징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물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며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가진 정화의 힘은 사악이나 부정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여겨지며 종교적 의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물이 갖는 정화의 의미는 물축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은 4월 중순 약 3~4일에 걸쳐 물축제를 즐깁니다. 고대 인도에서 건너온 역법에 기반해 4월 중순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이 국가들은 정결한 의식과 성대한 축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태국의 송끄란, 미얀마의 띠장, 라오스의 분삐마이, 캄보디아의 쯔츠남 트메이와 같은 새해맞이 행사들은 불상을 깨끗한 물로 씻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후 서로에게 물을 부어주며 축복을 기원하고, 거리에서 물총이나 바가지, 호스 등으로 물을 뿌리며 축제를 만끽합니다.

For the peoples of ASEAN, water is more than just a physical resource—it is also a symbol of spiritual significance. Water not only represents life and prosperity but is also believed to hold purifying powers that can ward off evil or negativity. Water, therefore, often plays a leading role in religious rituals and practices.

Water as a symbol of purification is manifested in water festivals celebrated across mainland ASEAN countries. Thailand, Myanmar, Laos, and Cambodia, four nations which follow the lunisolar calendar rooted in ancient Indian tradition, observe the New Year in mid-April. For a period of three or four days, sacred rituals and grand festivities mark the occasion. The New Year celebrations of Thailand’s Songkran, Myanmar’s Thingyan, Laos’ Bun Pi Mai, and Cambodia’s Chol Chnam Thmey all begin with the ritual of cleansing Buddhist statues, which is followed by people gently sprinkling water on one another as a gesture of wishing for a prosperous year. Rituals are usually concluded by the splashing and dousing of water on the streets with water pistols, hoses, and buckets.









## 아세안의 의례와 물

### Water and Rituals in ASEAN

아세안인들에게 물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물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다양한 의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이 가진 정적의 깊은 사색이나 반영을 넘어서는 전통으로 아세안의 종교적 의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물이 있는 의례의 의미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은 4월 중순 약 2~4일에 걸쳐 물 축제(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하는 역설적 기원에 4월 중순을 한 해의 새 시작으로 보는 이 국가들은 전통의 의식과 신성한 축제를 한 해를 시작합니다. 태국의 송크란, 미얀마의 텡가, 캄보디아의 올로트, 인도네시아의 물 축제 등 아세안 국가들은 물의 정적의 깊은 사색이나 반영을 넘어서는 전통으로 아세안의 종교적 의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For the peoples of ASEAN, water is more than just a physical resource. It also serves as a symbol of spiritual significance. Water not only represents life and prosperity but is also believed to hold purifying and cleansing powers to ward off evil or negativity. Water, therefore, often plays a leading role in religious rituals and practices.

Water as a symbol of purification is mentioned in water festivals celebrated across mainland ASEAN countries. Thailand, Myanmar, Laos, and Cambodia hold celebrations in the middle of April for a period of three or four days. These four nations, which follow the lunisolar calendar rooted in ancient Indian traditions, observe the New Year in mid-April with sacred rituals and grand festivities. The New Year celebrations of Thailand's Songkran, Myanmar's Thingyan, Laos' Boun Pi Mai, and Cambodia's Chul Chhin Thmey all begin with the cleansing of Buddha statues, which is followed by people gently pouring water to one another as a gesture of purifying for a prosperous year. Rituals are usually concluded by the splashing and dousing of water on the streets with water pistols, buckets, and showers.







송끄란 축제의 불상 닦기  
Pouring Water over Buddha Statue  
during Songkran Festival  
사진 Photograph  
태국 Thailand  
© Pass an inspiration / Shutterstock.com





투통 결혼의식 Tutong Wedding Tradition  
 아미르 하즈완 하미돈 Amir Hazwan Hamidon  
 브루나이 다루살람, 2016 Brunei Darussalam, 2016  
 © Amir Hazwan Hamidon / Sutera.Co



# WATER, A CELEBRATION OF LIFE

## 아세안의 삶과 물

물과 함께 살아가는 아세안의 다양한 삶을 더 살펴봅니다. 호수 위에 밭을 만들고 배를 타고 다니며 채소를 수경재배하는 미얀마 인레 호수 사람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강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축제를 벌이는 필리핀 이푸가오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는 강, 호수, 바다에 배를 띄워 보트 경주가 열리기도 하고 필리핀에서는 하천 퍼레이드를 즐기기도 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투통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랑신부의 발에 물을 부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물은 삶의 축복입니다.

Water is highly significant in the lives of ASEAN citizens. At Myanmar’s Inle Lake, locals travel in boats and cultivate vegetables in floating gardens. Communities in the Ifugao Province of the Philippines mark the end of the harvest season with a ritual that includes an intense tugging match in the river. Boat races on rivers, lakes, and seas are enjoyed in countries like Vietnam and Thailand, and festivals featuring fluvial parades are held in the Philippines. In Brunei Darussalam, Malay Tutong weddings include a ritual of pouring water over the feet of the bride and groom as a show of congratulations for their new beginning.

Water is a celebration of life.







##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아세안의 삶과 물

인류의 문명은 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서양문명은 물과 함께 발달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인류에게 가장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며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입니다. 물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입니다. 물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입니다.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아세안의 삶과 물'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림과 다양한 문예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의 문화, 언어, 역사, 물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인들이 물과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를 통해 아세안과 교류한 지역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세안 사람들의 삶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origin of human civilization is water. It is through water that human society and culture, which is the most essential and culturally important substance to humanity, have been continuously formed.

Throughout history, water has been highly valued, and societies have continuously formed to observe and develop practices for water's safe use and management. Water is a medium that connects a society's distinctive cultural environment as well as its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The ASEAN Culture House proudly presents the special exhibition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a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The exhibition explores and celebrates the profound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water in ASEAN countries through a broad range of media, including photography, video, picture books, and crafts. Visitors are invited to reflect on the exhibition's theme from diverse facets of culture, including linguistic expressions, idioms, myths, and legends, as well as daily life and social customs. It is hoped that the exhibition can give visitors a more balanced and fa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rogress of ASEAN and that this, which harmoniously reflects the unique nat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 |             |  |
|-------------|--|
| 1. 아세안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 2.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3.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4.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5.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6.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7.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8.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9.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10. 아세안 문화원 | The ASEAN Culture House                |

## 아세안의 물 - 언어 Water in ASEAN - Linguistic Expression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물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물질 상태의 물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언어로 표현해왔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인 사회 관습적 체계이므로 하나의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하는 물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봅니다. 물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물의 성질이나 소리를 설명하는 형용사 등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언어 표현을 비교해 봅니다.

Water is vital for life and thereby exists wherever life exists. Humanity has coexisted and thrived with water whilst also carefully observing and interpreting this substance, depicting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through diverse linguistic expressions. Language is a system of social conventions that reflect the thoughts, values, and way of life of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that it is used and understood by.

This section features words related to water in languages used in ASEAN countries. From nouns signifying "water" to verbs describing the movement of water and examples of onomatopoeia that imitate the sound of water, expl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inguistic expressions of the ten ASEAN member states.









#### 아시아인의 의례와 물 Water and Rituals in ASEAN

아시아인의 의례와 물은 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며, 많은 문화에서 의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적인 물 의례를 소개합니다.

물 의례는 아시아 각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물이 정화와 축복을 상징하며, 많은 의례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물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문화에서 물의 부족을 기원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For the peoples of ASEAN, water is more than just a natural resource. It is also a symbol of life, prosperity, and purification. Many cultures in the region have traditional water ritual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ir history and beliefs.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traditional water rituals of various countries in Asia.

Water is a symbol of purification and is used in many traditional rituals across Southeast Asia. For example, in Vietnam, water is used for purification and blessing in many rituals. Water is also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e, and many cultures have rituals to pray for a good harvest.

물 의례는 아시아 각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물이 정화와 축복을 상징하며, 많은 의례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물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문화에서 물의 부족을 기원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 Water and Rituals in AS

[illegible][illegible]



1	물물물 Mul Mul Mul
서동주, 김민재, 편광훈 Dongjoo Seo, Minjae Kim, Ken Pyun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천 스크린 Single-channel Full HD video, multi-layered fabric screens 5’ 00” 2019	
2	우리의 물 Water for Us
홍민아 Minah Hong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실 스크린 Single-channel Full HD video, multi-layered thread screens 4' 00" 2019	
3	옹기 항아리 Onggi Jars
오향종, 정희창 Hyangjong Oh, Heechang Jung 옹기점토, 재유 <i>Onggi</i> clay, ash glaze 2018-2019	
4	카운디냐와 소마공주 Kaundinya and Princess Soma
안소연, 오가영 글 강지영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Jiyoung Kang 2019	
5	용공주와 세 개의 알 The Naga Princess and Her Three Eggs
안소연, 오가영 글 김보은 (DARORY)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Boeun Kim (DARORY) 2019	

6	깊은 물 속의 두 친구 A Tale of Two Underwater Friends
안소연, 오가영 글 홍그림 그림 Text by Soyeon Ahn, Gayoung Oh Illustration by Grimm Hong 2019	
7	머라이언 Merlion
강지영 Jiyoung Kang 종이에 과슈 Gouache on paper 34.0 x 34.0 cm 2019	
8	루뫣 룬땡 Lumut Lunting
김보은 Boeun Kim 핸드 드로잉, 디지털 컬러링, 디지털 인쇄 Hand drawing, digital coloring, digital printing 39.3 x 54.5 cm 2019	
9	메콩 라이트 Mekong Lights
홍그림 Grimm Hong 핸드 드로잉, 디지털 컬러링, 디지털 인쇄 Hand drawing, digital coloring, digital printing 39.3 x 54.5 cm 2019	
10	보트 모형 Boat Model
나무에 채색 Painting on wood 높이(H) 9.0 cm, 길이(L) 52.2 cm, 폭(W) 10.1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11	통발 모형 Fishing Tackle Model
나무 Wood 높이(H) 32.0 cm, 최대지름(D) 15.2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12	자수 일상풍경 Scenes of Everyday Life
섬유, 자수 Embroidery on textile 50.0 x 46.5 cm, 49.0 x 45.0 cm 라오스, 2018 Lao PDR, 2018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3	목제 물통 Bucket
느릅나무 Elm wood 높이(H) 41.2 cm, 최대지름(D) 30.4 cm 높이(H) 41.1 cm, 최대지름(D) 30.2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4	목제 물지게 Carrying Pole
나무에 옷칠 Lacquer on wood 116.4 x 3.5 cm 미얀마, 19세기 Myanmar, 19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5	목제 물통 Bucket
나무, 금속판 Wood, metal plates 높이(H) 59.6 cm, 최대지름(D) 32.5 cm 높이(H) 54.6 cm, 최대지름(D) 31.5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6	목제 바가지 Bucket
느릅나무 Elm wood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26.5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7	토기 항아리 - 팔라옥 <i>Palayok</i>
토기 Earthenware 높이(H) 18.0 cm, 최대지름(D) 27.1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8	도기 항아리 Jar
도기 Stoneware 높이(H) 28.7 cm, 최대지름(D) 24.5 cm 높이(H) 27.5 cm, 최대지름(D) 23.0 cm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25.5 cm 라오스, 2019 Lao PDR, 2019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19	두 귀 달린 병 Bottle with Two Ears
도기 Stoneware 높이(H) 26.8 cm, 최대지름(D) 16.1 cm 높이(H) 26.7 cm, 최대지름(D) 16.9 cm 베트남, 시대미상 Viet Nam,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0	흑유 병 – 라부 사용 <i>Labu Sayong</i>
도기 Stoneware 높이(H) 37.1 cm, 최대지름(D) 18.5 cm 말레이시아, 시대미상 Malay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1  
흑유 병 – 라부 사용 *Labu Sayong*  
  
도기 Stoneware  
높이(H) 34.5 cm, 최대지름(D) 22.5 cm  
말레이시아, 시대미상 Malay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2  
국자 Ladle  
  
코코넛 열매 Coconut shell  
높이(H) 8.6 cm, 길이(L) 62.0 cm  
높이(H) 8.5 cm, 길이(L) 47.3 cm  
높이(H) 6.6 cm, 길이(L) 33.6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라오스, 2018 Lao PDR, 2018  
태국, 20세기 Thailand,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3  
테라코타 항아리 – 톼 사이 남 두엠 *Toom Sai Nam Duem*  
  
테라코타 Terracotta  
높이(H) 39.7 cm, 최대지름(D) 30.7 cm  
높이(H) 19.8 cm, 최대지름(D) 16.9 cm  
태국, 21세기 Thailand, 21st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4  
개구리장식 흑유 항아리 Jar with Frog Figurines  
  
도기 Stoneware  
높이(H) 34.3 cm, 최대지름(D) 34.0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5  
백자양각다채 봉황문 항아리 Jar with Phoenix Design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31.6 cm, 최대지름(D) 17.5 cm  
높이(H) 31.7 cm, 최대지름(D) 17.5 cm  
베트남, 시대미상 Viet Nam,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6  
호리병 Gourd Bottle  
  
박 열매, 노끈 Gourd, braided cord  
높이(H) 23.4 cm, 최대지름(D) 13.5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7  
호리병 Gourd Bottle  
  
박 열매, 대나무, 노끈 Gourd, bamboo, braided cord  
높이(H) 30.3 cm, 최대지름(D) 17.5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8  
갈유 항아리 Jar  
  
도기, 대나무, 노끈 Stoneware, bamboo, braided cord  
높이(H) 31.4 cm, 최대지름(D) 25.0 cm  
라오스, 20세기 Lao PD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29  
철기 잔 Lacquered Cup  
  
대나무, 옷칠 Bamboo, lacquer  
높이(H) 6.1 cm, 최대지름(D) 6.5 cm  
높이(H) 6.1 cm, 최대지름(D) 6.5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0  
청자양각 머라이언 문양 잔  
Celadon Cup with *Merlion* Design

청자 Celadon  
높이(H) 6.3 cm, 최대지름(D) 7.1 cm  
높이(H) 6.2 cm, 최대지름(D) 7.0 cm  
싱가포르, 20세기 Singapore,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1  
말총 잔 Cup  
  
대나무, 말총, 옷칠 Bamboo, horsehair, lacquer  
높이(H) 8.4 cm, 최대지름(D) 10.0 cm  
미얀마, 20세기 Myanmar,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2  
백자청화 코끼리형 주자  
Elephant-Shaped Ewer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17.7 cm, 22.3 x 13.3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3  
백자청화 두꺼비 장식 뚜껑 주자  
Ewer with Toad-Shaped Lid  
  
백자 Blue-and-white porcelain  
높이(H) 11.5 cm, 24.5 x 16.3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4  
주전자와 퇴수기  
Kettle and Strainer  
  
알루미늄 Aluminum  
높이(H) 15.0 cm, 총길이(L) 25.0 cm  
높이(H) 5.0 cm, 최대지름(D) 20.0 cm  
브루나이 다루살람, 20세기 Brunei Darussalam, 20th century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사관 소장  
The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on

35  
은제 발 Bowl  
  
은 Silver  
높이(H) 11.8 cm, 최대지름(D) 16.4 cm  
베트남, 20세기 Viet Nam,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6  
구리 물그릇 - 프틸캇 *Phtil Khat*  
  
구리 Copper  
높이(H) 30.1 cm, 최대지름(D) 23.1 cm  
높이(H) 24.3 cm, 최대지름(D) 22.2 cm  
캄보디아, 20세기 Cambodia, 20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7  
발우 Alms Bowl  
  
스테인리스스틸, 합성섬유 Stainless steel, synthetic fibers  
높이(H) 26.9 cm, 최대지름(D) 26.6 cm  
라오스, 21세기 Lao PDR, 21th century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8  
얼굴장식 단지 – 마이툼 단지 Maitum Jar  
  
토기 Earthenware  
높이(H) 19.4 cm, 최대지름(D) 16.1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39  
토기 주자 – 켄디 *Kendi*  
  
토기 Earthenware  
높이(H) 12.9 cm, 16.4 x 15.0 cm  
필리핀, 시대미상 Philippines,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40  
도기 주자 – 켄디 *Kendi*  
  
테라코타 Terracotta  
높이(H) 10.8 cm, 19.7 cm x 16.4 cm  
인도네시아, 시대미상 Indonesia, period unknown  
아세안문화원 소장 ACH Collection

41  
아세안의 삶과 물 Water, a Celebration of Life  
  
김소현 Sohyun Kim  
2채널 Full HD 비디오 Two-channel Full HD video  
3' 09"  
2019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아세안의 삶과 물

2019.6.18.-9.22.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 근  
교류협력이사 김성인  
아세안문화원장 함승훈  
문화사업부장 이방복  
문화사업부 유혜인

객원큐레이터 오가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안소연  
번역 안소연  
도록 감수 주경미  
공간 및 그래픽 디자인 액션서울  
전시연출·시공 넥스디자인플래닝  
도판사진 김광섭, 케이아트스튜디오  
전시전경 굿보이픽처스, 액션서울  
도록 디자인 김현경

협력작가  
서동주, 김민재, 편광훈  
오향종, 정희창, 홍민아  
강지영, 김보은, 홍그림  
김소현

자료조사 협조  
아티가 라두안, 누르 나비야 아딜라 히 주킨(브루나이 다루살람)  
야니 파라스티 시레가르(인도네시아)  
첫쑤나잉(미얀마)  
로렌 다릴 사레나(필리핀)  
응우옌 티 투 우옌(베트남)

후원  
외교부  
부산시

주최·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전시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Splash ASEAN! Water, a Celebration of Life*

June 18, 2019 - September 22, 2019

The Korea Foundation  
President Geun Lee  
Executive Vice President Seong-in Kim  
Director-General of ASEAN Culture House Seung-hoon Ham  
Director of ACH Performing Arts and Exhibitions Department Bangbok Lee  
Senior Program Officer Hyein Yoo

Guest Curator Gayoung Oh  
Assistant Curator Soyeon Ahn  
Translation Soyeon Ahn  
Catalogue Supervision Kyeongmi Joo  
Space and Graphic Desgin action seoul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NEX Design Planning  
Photograph Kwangsup Kim, K-Art Studio  
Installation View Goodboy Pictures, action seoul  
Catalogue Design Hyeongyeong Kim

Collaborating Artists  
Dongjoo Seo, Minjae Kim, Ken Pyun  
Hyangjong Oh, Heechang Jung, Minah Hong  
Jiyoung Kang, Boeun Kim, Grimm Hong  
Sohyun Kim

Research Cooperation  
Atigah Raduan , Nur Nabilah Adilah Hj Jukin (Brunei Darussalam)  
Yani Parasti Siregar (Indonesia)  
Chit Su Naing (Myanmar)  
Loren Daryl Sarenas (Philippines)  
Nguyen Thi Thu Uyen (Viet Nam)

Suppor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s  
The Korea Foundation  
ASEAN Culture House

Special thanks to all those who contributed to this exhibition.

아세안문화원

48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전화. 051-775-2000 / ach@kf.or.kr / www.ach.or.kr

ASEAN Culture House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Korea, 48108

Tel. 051-775-2000 / ach@kf.or.kr / www.ach.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2019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ASEAN Culture House, The Korea Foundation 2019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SEAN Culture  
House, the Korea Foundation.